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0호 [주체 제25273호] 주체105 (2016)년 5월 9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집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최후승리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중앙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총정의 명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 3일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당대회보고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국력이 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 주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총화하였다고 하시였다.

당대회에 차던 혁명적열정과 기백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동선 우리 당의 참모습, 당의 명도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고귀한 밀천으로, 만년토대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리상과 꿈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를 소집한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한성이 어려어있는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드넓지 않은 기쁨을 마련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와

투쟁강령을 제시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벌임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파강한 공격전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비열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당 제7차대회파업관철을 위한 총진군포성으로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과업관철에 총대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라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며 각급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합법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로선이라고 하시였다.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강령을 수행하는데서 주타적방향은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마음먹고 달려들어 투쟁하

면 짧은 기간에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시였다.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 경제지도인원들이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구체적인 작전과 지도사업을 잘하여 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선봉부문에 총력을 집중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푸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가는 기관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대회가 내세운 전략적로선과 방침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짜고들며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벌임으로써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자강력제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누구나 자강력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만사를 자강력으로 해결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침입적으로 들이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정치사상공세의 도수를 높이고 온 사회가 양양된 혁명적분위기로 옮겨 하자면 출판보도부문과 문학예술부문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림장과 자세에서 빈틈없는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며 맡겨진 과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생는길을 헤쳐나가는 인민의 참다운 총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펼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주체혁명의 주력군단계 주동이 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인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자기 혁명초소를 화선으로 여기고 명명받은 병사의 자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는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삼악같이 떨쳐일어나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진로를 밝힌 강령적문헌이며 천만군민을 새로운 혁명적전군으로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백승의 진로를 펼쳐준 위대한 우리 당에 최대의 영광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3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3일회의가 5월 8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론을 하시기 위하여 연락에 나서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리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렬적과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결론을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당 제7차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었으며 대회의 기본정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려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대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지난온 혁명의 년대들에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영웅적투쟁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온것처럼 혁명의 불은기국이 전진도상에 가로놓

인 도전과 난관을 용감히 뚫고 총진군포성을 힘차게 울림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되게 할의지가 어려웠었다.

그들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본태를 만천하에 펼쳐나갈 새로운 각오와 투지로 가슴을 끓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결론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빛나는 예지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 확고부동한 자주의 신념과 철의 의지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백승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절세위인을 우리러 열광적인 박수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리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과학적통합력과 원대한 포부,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일관

되어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당 제7차대회정신을 심장마다에 조아박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강용한 조선인민의 역센 기상을 만방에 펼쳐갈 불타는 맹세를 가다듬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이 랑독되었다.

3 번 으 로 계 속



백승의 진로를 펼쳐준 위대한 우리 당에 최대의 영광을!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 3 일 회의 진행



2 번 에 서 계 속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를 최승호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대회장에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300만 조선소년단원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총정의 마음을 담은 향기그옥한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었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을 낭독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축하단이 대회장에 입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500만 청년전위들의 열렬한 흥모와 총정의 마음을 담은

향기그옥한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축하단이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을 낭독하였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3일회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백년대계의 위煌찬란한 미래를 펼쳐준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이 최대로 분출되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태해준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대회는 계속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제1비서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의 사업총화보고는 영웅 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적 사회주의위업은 과학이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철의 본리와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으로 본중대한 력사의 선언이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이 절명하여야 할 목표와 과업, 당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불멸의 대장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을 따라 피어린 혁명의 천리길을 헤쳐오며 승리만을 맹목적으로 외치는 공지와 자부심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느끼고 있는 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혁명의 진로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용기있게, 기세충천하여 질풍노도처럼 필승의 신념과 의지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동지들!
백두산절세위원회의 혁명적 명도명예 총결간기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의 사업총화보고는 영웅 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적 사회주의위업은 과학이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철의 본리와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으로 본중대한 력사의 선언이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이 절명하여야 할 목표와 과업, 당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불멸의 대장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확고히 실현하는데 철저히 복종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바지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가 있었음에 하여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의 사업총화보고는 영웅 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적 사회주의위업은 과학이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철의 본리와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으로 본중대한 력사의 선언이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이 절명하여야 할 목표와 과업, 당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불멸의 대장입니다.

경애하는 제1비서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의 사업총화보고는 영웅 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적 사회주의위업은 과학이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철의 본리와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으로 본중대한 력사의 선언이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이 절명하여야 할 목표와 과업, 당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불멸의 대장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동지의 실천살이에 복무할뿐 아니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바지하시어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재정으로 조선로동당 재정사업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주시었습니다.

동지들!
총결간기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의 사업총화보고는 영웅 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적 사회주의위업은 과학이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철의 본리와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으로 본중대한 력사의 선언이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이 절명하여야 할 목표와 과업, 당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불멸의 대장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에서 총결간기인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최후한 결사투쟁을 단행하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개회사를 시청하는 총련 중앙일군들의 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개회사를 시청하는 총련 중앙일군들의 모임이 7일 도모에 있는 조선외환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위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국장들을 비롯한 총련중앙의 전체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주체위업수행에서 혁명적 분수령으로 될 승리와 영광의 대회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주석단에 나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개회사를 시청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개회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참가자들은 백전백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회사를 하신 소식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회사를 하신 소식을 8일과 7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프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개회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참가자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경의를 드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들이 4월 28일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프레스스카야 프라우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개회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참가자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시, 중국의 상해시, 장소성 무역시, 산둥성 제남시, 마카오에 소재한 로씨야, 핀란드 보르네오에서 우리 나라 도서, 무료,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 공연회가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사회주의의 한길로 역세계 전진하는 조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4월 23일 마르스트링과 슬로베니아언론이 인터넷포럼에서 글을 올렸다.

마르스트링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경의를 드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들이 4월 28일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프레스스카야 프라우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개회사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참가자들은 백전백승

조선소년단축하단 축하문 어머니로 동당에 영광드려요

애기별이 반짝 웃는 어제 밤
어머니당대회를 축하하러 간다
고요
송이송이 꽃다발 금제 옆는데
귀염둥이 내 동생 문득 물어보겠
지요
- 언니야 담이만 무슨 말이나

아이삼 이걸 어쩌나
나는야 곰곰히 생각했어요
온 나라가 들쭉하던 소년단대회
야영소로 달려던 사랑의 편지를

올지 그대 나는 나는 대답했지요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은 신랑으로
주시는
담이란 경애하는 원수님
김정은원수님은 조선로동당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애기공전
자라나면 소년공전
꽃봉오리 우리들을 함께 안아
애지중지 키워주는 조선로동당

옛말속의 천리마를 만리마로
불러
기적의 내 나라를 안아오고
그 어떤 원수도 일선 못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우측 세워준
그 이름도 빛나는 조선로동당

아 소년단원 우리들은
원수님 마편해주신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우리 딸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영원히 빛내주시고
어머니당을 이끄시어
우리의 행복을 가꾸주시고 지켜
주시고
천만만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 영광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정다운 학교길 걸을 때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알가슴에 날리는 붉은비타이는
우리 당기발과 한빛

어제동무 반구르며
사열행진 신이 날 때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펼쳐 날리는 소년단기발은
우리 당기발의 한부분

그렇습니다 조선소년단은
그 이름도 자랑찬 로동당의
후비대
당기발따라 나가는 길에
우리의 행복은 넘치고
우리의 앞날은 장장합니다

어머니당의 품에 안겨서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꽃동산에서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가슴마다 넘치는 고마움으로
어머니당기발을 우리라면
대원수님들의 환한 웃음이
그대로 세빛이 되어
우리의 온몸을 감싸줍니다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리워지는
김일성대원수님

어머니당 제8차대회
그 높은 연단을 내리신 걸음
세일먼저 새기신것은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공장으로 농장으로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그 길에
서도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이 세상 제일 좋은 러를 끌러
꽃꽃마다 공전도 야영소도 지어



주시고
은 나라 아이들에게 한낱한시
목감기 새 교복을 입혀주시고도
재학날이 오면
자재로운 학부형이 되시어
기낯은 교실 작은 책상을 마주
하시고
교수장판도 하시었습니다
정녕 잊을수 없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후대들을 위해 바라시는것이
라면
저 하늘의 별도 떠오시면
김정일대원수님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고된의 행군
강행군의 그 땀과 힘찬 걸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한달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이
제일 가슴아프다고 하시며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공우유공정만은 세워주시고
뜨겁게 말할수있던 우리 장군님
그러면 바쁘신 전선길에서도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을 보시면
달리던 야전차도 멈추시고
손저어 바래워 주시던 우리
아버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오늘도 그 노래 목에어부르며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적시는 우리들입니다
대원수님
김일성대원수님
자재로운 그 영상 우리라면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가 열리
던 날
불편하신 몸으로 아이들곁에
오시면서도
내가 지평이를 짊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온다고
차인에 두고 오신 그 지평이가
못 건너지 우리 가슴을 히비고
대원수님 대원수님
김정일대원수님
인사하신 그 영상 우리라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
려고
12월의 눈보라를 뚫쳐가시던

야전행차의 기적소리가
영원한 이름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은
후대들을 위한 한평생
조국의 미래를 위한 한평생
어머니 우리 당의 력사는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애사랑의 력사입니다
아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오늘도 이 대회장에
끝없는 축복을 보내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애
사랑을
우리 당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
시며
원수님 이어가시는
선군혁명 의 힘찬 걸음을
늘 마음속에 안아보고 훑어보며
그리움에 잠 못 듭니다
대원수님들께서
후대들에게 주고싶으셨던 모든것
그대로 어서빨리
다 주고싶으신 마음
깊은 밤 전선장에
사랑의 끈 지옥을 남기시고
이른 새벽 솟는길 밟으시며
포전길도 공장길도 걸으시는 우리
원수님
자신의 한몸이
그대로 한층의 모태알이 되어
후대들이 가는 길에 뿌려진다고
해도
후회가 없다고 하시며
일년을 하루와 같이
천바람부는 한지에서
천만교생도 맞게 여기시는
원수님을 우리처럼
매없이 눈물을 적시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니었습
니까
우리는 잊을수 없습니다
실명절 그날에도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어
아버지장군님 그리워 우는
원아들의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궁궐길은
육이던 애육원 찾아주신 그날
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끓어질세라
해벌이 내려포이는 미당가에
오래오래 서게시던 우리 원수님
잔디 푸른 경기장
아이들의 축구경기도 보아주
시며
포미선수들을 함께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
원수님
그날에
장님 그날에
우리 알기나 했습니까
원수님 시간은
조선을 이끄시고 세계를 움직이
시는
분분초초 아기는 귀중한 시간
그 시간유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있기에
천궁길은 그 시간마저
우리에게 다 바쳐진것을
알기나 했습니까 그 나날들은
사회주의나 죽음이나
매지어 달려드는
제국주의원수들과의 판가리싸움
아이들의 요환에
한줄기 찬바람이라도 스프레라
장을 다해 사랑을 다해
언제나 우리곁에 계신것을
지금도 들려웁니다
술비람도 정다운 송도원기슭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야영소를 꾸려
주시고
원수님 하시던 말씀
이 야영소는 우리 당이
어린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최한한 야영소를 꾸리고
보니
대원수님들의 생각이 더 난다고
하시며
저 멀리 떨어진 전선길 그 험한
산밭에
한없는 그리움의 눈길을 잃으시던
원수님
새로 꾸린 만경대혁명소년공전
황홀한 쿠장이랑 소조실이란 다

들어보시고
넓은 흙을 오래오래 거니시며
조용히 하시던 그 말씀
이 공전은 말그대로 어머니당의
품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공전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실맞이공연을 진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 지는것 같다고
하시며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가시던
원수님
아 대원수님들의 뜻으로
어머니당의 손길로
꽃봉오리 우리들을 함께 안아
조국의 미래로 키워주시는 사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최후승리의 함성으로 이어지
라고
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최고에서 최고로
우리들의 새 교복 입은 모습도
보이주시고
우리들의 신발무게도 가능해
보이고
우리들의 학습장까지 넘쳐하시어
새 공장도 세워주시고
그 이름도 민들레라 지어주시
다심한 사랑
정녕 그 사랑 그 손길이 있었
기에
소년단 명절날에도
꼬마대표들을 부르는
사랑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고
사랑의 특별열차가 온빛레도를
달리는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이 꽃겨
났습니다
원수님 주신 새 교복 입고
원수님 주신 새 책가방 들고
원수님 주신 멋진 책을 펼쳐며
마음껏 배우며 뛰노는 우린
이 세상 가장 부날은 세대
학교마다 일터마다
온 나라 집집마다
끝없이 울려 퍼지는
조선로동당민세소리
그 민세 높이 부르며
우리는 목청껏 노래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의 짐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밝게 웃어라 마음껏 뛰놀거라
말할날이면 갈 곳도 많아
물놀이장으로 갈가
승마구락부로 갈가
빙상장으로 갈가
아나아나 아나아
자연박물관으로 가지
어린이공원으로 가지
백사라고 생형 마시행으로
기차라고 활활 요향산으로
가슴에 싣는 작은 소원도
나라의 정복에 담아주시고
가슴에 망울지는 작은 꿈까지
우리 당의 사랑으로 꽃겨주시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아버지 어머니들
우리는 보았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수학여행길, 답사행군길에서
원수님 쥐어주신
자강력의 열쇠로
만복의 큰 문을 여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자랑찬
모습을
잠자던 바다도 황금해
버림받던 봉분도 고기봉판으로
어릴 가나 선경거리 선경마을
어릴 가나 푸른 산 푸른 숲을
펼치며
자동화의 봄노래속에
날마다 끊어지는 내 나라를 가꿔
가는
아버지 어머니들
별 하나 나 하나 별 불 나 불
관리장공원 우리의 위성을 띄워
놓고
원수님을 발발 떠는 백두의 불뿔
성으로
우리의 웃음을 지켜주는 아버지
어머니들
원수님의 높이신 뜻 가슴마다 새
기고
전진하는 데오의 앞 길에서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어
날과 달을 주름잡아 달려온
대표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수고를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 어찌 모르겠습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어머니당의 덕분 뿌리가 되고
어머니당의 손발이 되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은 세상에 펼쳐고 빛내어온
대표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소년단원 우리들은
열렬한 축하 축하를 드립니다
승리자의 자랑이
과도치며 설레이는 이 대회장
궁지로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습
에서
우리는 그러합니다
어머니당대회가 펼쳐준
휘황한 설제도를 따라
넘치는 행복이 끝없이 물결쳐
오는
내 조국의 최망한 앞날을
그날이 오면
아 그날이 오면
우린 모두 기도 마음도 늘린 지라
그 이름도 자랑찬 로동당의 청년
전위
영웅적신회의 주인공
우리 오빠 언니들이 제일 선함
말아놓은
백두산대국의 문패야애
가슴 꼭 쥐고 들어설 그날은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겠습니다
태양단을 따르는 해바라기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
배우며
백두의 괴물기를 뜻뜻이 이어가
렵니다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성적중에 먼저 그려진다고 하신
원수님 말씀 꼭꼭 명심하고
날마다 주렁지는 지덕제 5점
앨범로
어머니당의 사랑을 받는
나이런 애국자 기복한 건설자
앞날의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적극하게 자라겠습니다
소년단원 우리들은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의 뒤를
따라
가리와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그 어떤 바람이 불아치해도
한모습으로
백두의 혈통만큼 끝까지 따르겠
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항일의 날에 아동단원들이 걸어
온 길
전화의 날에 소년별비산들이 걸
어온 길
대를 이어 걸어온 백두의 행군길
에서
열백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어머니당을 걸사옹위하는
소년군위대 소년혁명가가 빛났을
준계준계 맹세합니다
대표아버지 어머니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원수님 우리라 다진 맹세를 지켜
온 세상이 부러워할 백두산대국
만복이 철천 님척조를
통일된 강성조선을
우리에게 물려주세요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내 조국의 미래를 위해
참바람 눈비도 다 맞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더 잘 모셔주세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